예술 중점 대안학교 생긴다

제주시 봉개동에 '예주랑'
음악재단 천송재단 운영
9월 1일 개교 기념 콩쿠르
음악·미술 등 특성화 교육

제주시 봉개동 6600여㎡(2000평) 부지에 예술학교가 들어선다. 비인가 대안학교로 9월 개교 예정인 '예주랑'(명림로 226-56)이다.

도내 비영리 음악재단인 천송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주랑은 예술, 제주, 사랑의 줄임말이다. 기독교 정신 아래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천송재단은 이번에 개인별 맞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질높은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학교를 세웠다.

예주랑에는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합창지휘, 작곡을 포함한 음악과와 미술과가 개설된다. 특수전공인 피아노 조율·제작과, 현악기 수리·제작과, 플로리스트과, 알렉산더테크닉과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사진은 해외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꾸려졌다. 음악과 강사는 성악 배성희(소프라노), 피아노 지석영, 바이올린 이보연, 지휘 김희철, 작곡 이현철씨로 구성됐다. 미술과는 방희영씨가 강사로 초빙됐다. 특수전공 분야는 서상종(피아노 조율·제작), 신창희(플로리스트), 김수연(알렉산더테크닉)씨가 강의를 맡는다.

예주랑은 적성검사를 통해 학생 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진로를 제시해줄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 준비과정, 국내 대학 준비과정, 예술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과정을 가동하고 국내대학 입시를 위한 검정고시반과 수능반도 함께 운영한다.

현재 예주랑은 강의실, 강당, 기숙사, 공용 주방 등이 있는 3동의 건물을 지었다. 향후 야외 음악당, 레슨동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주랑'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소프라노 배성희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열창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악가인 권영호 천송재단 이사장은 "제주와 인연을 맺은 뒤 15년 전부터 꿈을 꾸고 준비해온 학교"라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어를 포함 학생들이 지닌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교장인 제주출신 김희철 지휘자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술 진학 정보가 부족한 제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9월 1일 개교하는 예주랑은 첫 사업으로 국내 참가자 대상 성악·피아노 두 부문에 걸친 음악콩쿠르를 연다. 전체 대상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콩쿠르다. 9월 3일에는 개교 기념 음악회를 펼친다. '예주랑'이나 '천송재단'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화 같은 오페라 동영상 탄생할까

5개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촬영·영상 장비 등 전문화
이달 10~11일 온라인 중계

5개 제주도립예술단이 처음으로 뜻을 모은 합동작품이 결국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펼쳐진다. 제주도는 이달 10~11일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를 2회 모두 유튜브 채널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는 이탈리아 현실주의 오페라로 불린다. 귀에 익은 아리아 등이 흘러나오는 작품으로 청중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오페라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도립무용단과 공동으로 도립예술단 창단 후 처음으로 합동공연을 기획해 이 무대를 추진해왔다. 한국인 최초로 베르디극장에서 연출 데뷔한 이의주씨가 연출을 맡았고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인혁씨가 지휘한다. 주·조역 출연진은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된 서선영 성악가 등 10명에 이른다. KBS 제주어린이합창단도 무대에 오른다

긴 시간 준비된 무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끝내 현장 공연 관람은 무산됐다. 이에 제주도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공연이 되도록 조명, 분장, 음향, 카메라 연출 등을 방송·영상용으로 제작해 실시간 중계한다.

첫날 오후 7시30분에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순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둘째날 오후 5시에는 '팔리아치'부터 공연이 이루어진다. 유튜브 '에이제이피-AJP' 계정(http://reurl.kr/2BE8DE9FAQ)을 이용하면 공연을 볼 수 있다.

제주도는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추진돼 아쉽지만 공연장의 생생한 감동을 도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촬영·영상 전문가를 투입한다"며 "안방에서 공연 실황과 똑같은 감동을 느끼기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211>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으멩이 꼴멘. "하르바지- 놀레가 넘이 어려운 게 마씀."
하르바지 꼴멘. "아고, 경ᄒᆞ냐? 게민 ᄒᆞ쏠 싯당 불르기 쉽게 베와주마."
좀녀 꼴앐저. "놀레 더 ᄒᆞ여줍서. 얼메나 더 잇수강?
하르바지 꼴멘. "ᄒᆞ꼼 더 잇저마는. 경ᄒᆞᆫ디 으멩인 어드레 저영 나삼신고? 대죽부룩이기라도 봉가보젱 ᄒᆞᆯ인가? 저추룩 으상으상 가는 게 숭시여."
으멩이 꼴멘. "누님- 나 대죽부룩이라도 봉가 오커메 ᄉᆞᆯ아줍서양. ᄃᆞᆯᄏᆞ롬ᄒᆞᆫ 거 놩양."
좀녀 꼴앐저. "그직 아시날 ᄐᆞᆫ아 온 거 ᄆᆞᆫ첨 으정오라. 고팡 ᄂᆞ단착펜이 쏠항 뒤티 오시록ᄒᆞᆫ디 ᄃᆞᆯ아메 뒷저. 으나문 개민 뒐거여게."

*** 제주어 풀이**

*베와주마 : 배워줄게. *나삼신고? : 나가고 있지?
*대죽부룩이(강낭대축여물, 강낭부레기, 강낭이부루기, 강녱이부루기 깡냉이, 대직부루기, 대직부룩이, 대직부리기, 대축부래기 대축부랭이, 대축뿌래기) : <이름> 옥수수 열매.
*봉그다 : <움직> 물건이나 돈 따위를 거저줍다. 노력 없이 거저 얻다.
*으상으상(으슬으슬, 으실으실) : <어찌> 목적 없이 이리저리 천천히 돌아다니는 꼴.
*숭시 : <이름>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징조나 단초 또는 흉사.
*오시록ᄒᆞ다(오소록ᄒᆞ다) : <그림> 둘레가 잘 가려져 들어나지 않아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다. 사람이 까불지 않고, 침착하면서 실속 있게 자기 할 일은 다 챙기는 성질이 있다.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가 쪽지

이완호 유럽 풍경화 초대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이 어렵게 됐으니 말이다. 그림으로 아쉬움을 달래보자. 지난 1일부터 현인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완호 초대전이다.

이번 초대전에는 유럽의 여러 명소를 다니며 그려낸 풍경화들이 나왔다. 인상파 화가의 발자취를 따라 오래 전 남유럽의 빛과 색을 찾아 떠났던 작가는 스페인, 남프랑스,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로 관람객을 이끈다. 이달 15일까지. 문의 747-1500.

제주디자인협회 정기전

사단법인 제주디자인협회(회장 오창윤)가 마련한 제24회 제주디자인협회 회원전이 '디자인, 다시 바라던 바다!'를 주제로 제주도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 주제는 평소 바라던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바다를 대상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를 담았다. 20명이 넘는 회원들은 도예, 금속, 염색 등 여러 방식으로 저마다 빛깔 다른 작품을 전시장에 펼쳐놓고 있다. 전시는 9일까지.

세대 공감 의식개선 역할극

제주YWCA통합상담소(소장 양금선)는 찾아가는 세대 공감 의식개선 역할극인 '느영 나영 잘 살아보게 마씸'을 공연한다.

이 사업은 성역할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을 알고 성 불평등 상황의 역할극을 관람한 후 자유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연은 노인, 성인, 청년, 청소년, 유·아동 대상 총 30회(회당 30명 내외)에 걸쳐 이뤄진다. 공연을 희망하는 곳은 상담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748-3040.

아프리카박물관 인문학 체험

제주 아프리카박물관(관장 한성빈)이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공모에 선정됐다.

어린이 대상 '코뿔새의 날개'는 7월 18일~9월 19일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만약 내가 학예사라면'은 중·고교생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성인 대상 '신화를 알면 역사가 보인다'는 북토크 형식으로 8월 1일~9월 12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박물관 블로그 참고. 문의 064)738-6565.

제주문학의 집 시 창작곳간 운영

제주문학의 집(운영위원장 고운진)이 여름날 시(詩) 창작 과정을 마련했다. 이달 14일부터 진행되는 '시 창작곳간' 프로그램이다.

'시의 이유인, 이유의 이유인'이란 제목을 내건 이번 강좌는 8월 22일까지 모두 16강 일정으로 짜여졌다. 강의는 장이지 시인(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방영 시인(국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장), 신용목 시인(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손택수 시인(노작홍사용문학관 관장)이 차례로 맡는다.

현재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은 시 창작에 필요한 안목을 길러주고 실제 시 창작과정을 통한 창작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이어간다. 시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문의 070-4115-1038. 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 남 수
제 주 시 장

안 동 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장협의회
회장 고두진(와산리장) 상임부회장 손유철(신흥리장) 부회장 양공택(하귀1리장) 부회장 강정윤(김녕리장)
감사 강한철(월령리장) 감사 문영준(청수리장) 사무국장 김두환(와흘리장) 한림읍협의회장 이영호(한림1리장)
애월읍협의회장 문태준(고성1리장) 구좌읍협의회장 홍용기(송당리장) 조천읍협의회장 한명용(함덕리장) 한경면협의회장 조성식(낙천리장)
추자면협의회장 윤보선(묵리장) 우도면협의회장 김양남(조일리장)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 남 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촌형 홍문삼 가족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 남 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경면연합향우회
회 장 김 봉 찬 외 회원일동